

중국 연변지구 한족과 조선민족 아동행동문제 비교분석

COMPARISON OF BEHAVIOR PROBLEMS AMONG CHILDREN OF KOREAN AND CHINESE ANCESTRY IN YUNBYUN REGION

金鳳鎮·金哲九·表美子·崔 純

Pong Chin Kim, Chul Koo Kim, Mi Ja Pyo, Soon Choi

요 약 : 연변지구에 거주하는 한족과 조선민족아동들의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사이의 한족아동 500명과 조선민족아동 512명을 부모보고형 CBCL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Social withdrawal, depressed, somatic complaints, aggressive 등의 행동문제는 연변지구의 두 민족 아동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행동문제였으며, 미국이나 상해아동과 비교할때 연변지구의 아동들이 social withdrawal 문제는 더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aggressive 행동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빈도를 보였다 한족과 조선민족 아동들을 비교하였을 때 uncommunicative, 분열성, 강박, 불안등의 내향성문제행동은 한족아동에게서 더 빈번히 나타났으나, 활동과다, 잔폭한 행위등은 조선족 아동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국민들의 물질문화수준의 향상과 국제교류의 증가와 더불어 중국 각 민족의 전통적인 가정구조 생활방식과 인간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변화는 아동들의 심리발육에 영향주고 있다. 아동들의 심리발육상의 장애를 파악하는 것은 후계자의 교양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연변지구 아동들에게 존재하는 정신위생문제를 파악하며 이런 정신위생문제가 한족과 조선민족아동들간의 差異를 파악하여 관계부문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관계부문으로 하여금 효력있는 대책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1988년 11월~1989년 3월 연변지구의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 까지 등교하는 한족과 조선민족 1012명 아동들을 Achenbach氏가 1983년에 고안해낸 child Behavior check-list(CBCL라고 간칭)로써 조사하였다.

재료와 방법

1. 標本抽出課程

단순표본추출방법과 층차표본추출방법을 채용

하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이 우리 연변지구에 있는 한족과 조선민족 아동들의 행동문제와 사회문화 환경간의 關連問題를 비교분석하려는 것이기에 (本文에서는 다만 두민족 아동들간의 차이만 분석했지 社會文化環境간의 關連問題는 아직 분석하지 않았다.) 정부 교육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한족이 집거하고 있는 돈화현에서는 한족학교를, 조선족이 집거해 있는 화룡현에서는 조선민족학교를 선택하여 標本농촌으로 하고 한족과 조선민족이 대략상당한 비례로 집거하고 있는 연길시에서는 한족과 조선민족 학교를 각각 선택하여 도시 표본으로 하였다. 돈화현과 화룡현에서는 소학교 한개소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완전중학교라고 칭함) 학교 하나씩 선택하고 연길시에서는 한족과 조선민족 소학교와 완전 중학교 각각 하나와 보육원(한족과 조선민족 混成되어 있음) 둘을 선택하였다. 모두 일반수준의 학교를 택하였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매개 학년급에서 제일 첫번째 크라스를 택하였고 매개 크라스에서 남자 10명, 여자 10명을 선택하되

*중국 길림성 연변신경정신병방치원

그 가운데서 될수있는한 獨子 10名, 非獨子 10名이 들어 있게 하였다.

2. 調査과정

조사자는 전문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 세사람과 간호원 한사람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학교에 내려간 다음 학교지도부와 크라스를 맡은 교원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후 위생과 교원, 크라스 교원들께 이번 조사의 목적과 의의를 말하고 우리자체로 작성한 [조사표 가입 주의사항]을 설명하면서 한조목 한조목씩 교사조사표(TRF)를 가입하게 하면서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TRF가입이 끝난후 CBCL와 YSR의 가입방법을 설명해주고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그다음으로는 크라스교원이 학부모형을 크라스까지 오게한다음 CBCL을 요구에 따라 가입시켰다 또 학생들에게도 YSR을 가입시켰다. 세가지 표기입이 끝난다음 크라스교원이 거두어 위생과 교원에게 주었다. 가입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조목이 있는 표는 되돌려주어 요구에 부합될때까지 가입시켰다 거두어들인 조사표를 Computer Disk에 import data 하였다

3. 一致度

먼저 한개 소학교를 선택하여 조사과정에 따라 조사한 CBCL 가운데서 母親이 가입한 CBCL 31부를 골라 내고 그 모친에게 두주일후에 다시 한번 CBCL를 가입하게 하였다. 두번 가입한 행동문제 점수(Raw Score) 合計의 一致度を 구했다. (즉 중복一致度) 채취한 방법은 Spearman's 等級相關法이다

$$r = \frac{1 - 6 \sum d_i^2}{n(n^2 - 1)}$$

공식에 대입하여

$$r = 0.676 \quad P < 0.01 \text{ 였다.}$$

4. 調査道具[1·2]

우리는 美國國家精神邊生研究所 Thomas Achenbachis가 作成한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채용하였다. 이 조사표는 부모가 가입하도록 되었다. 그외에 교원이 가입하는 TRF, 청소년자체로 가입하는 YSR과 경험있는 관찰자가 직접가입하는 DOF가 있다 이번 연구에 쓴 것은 앞의 세가지를 채용하였는데 本文은 CBCL를 연구목적에 의해

정리한 것이다 CBCL는 두개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앞의 부분은 아동들의 생활환경과 개인 정황에 관한 내용이고 뒤부분은 아동행동문제 113조목으로 구성되었다. 本文은 뒤부분의 아동행동문제를 분석한 것인데 앞부분 생활환경과 개인 정황과 행동문제의 關連問題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113조목 행동문제는 7~8개의 因子項目으로 구성되고 몇개 因子項目은 두가지 행동문제 유형(internalizing와 externalizing)으로 되어 있다 매 조목의 배점표준은 그조목의 행동 문제가 없을때에는 "0"점으로, 간혹 출현할때에는 "1"점으로, 經常的存在할때에는 "2"점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Achenbachis 分組방법을 채용하여 4~16세 아동과 청소년은 4~5세 남자조, 4~5세 여자조, 6~11세 남자조, 6~11세 여자조, 12~16세 남자조, 12~16세 여자조 6개조로 나누고 매조의 norm을 구하였다 행동문제 Raw Score가 norm을 초과하면 그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Achenbach's는 頻度果斷, 98%를 限界値로 결정하였다(各年令性別組의 norm를 本文에 附添).

1 행동문제아동頻度の 漢朝民族兒童比較

1012명 아동중에서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이 66명 (6.52%), 한족 500명중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 37명(7.4%), 조선민족 512명중 행동문제 있는 아동 29명 (5.66%), 두민족 아동들간에 현저한 차이가 없었다 (P>0.05)

2. 행동문제因子項目頻渡의 漢朝民族兒童比較 (表1을 參照)

1) 總頻度の 比較

1012명의 아동에 행동문제가 93項次出現되었는데 그중 한족아동들에게서 52項次, 조선민족아동들에게서 4項次出現되어 漢族아동들에게서 출현된 행동문제항목이 조선민족 아동들에게서 출현한 것보다 좀 많았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P>0.05).

2) internalizing와 Externalizing 頻度比較

Internalizing 60項次중 漢族 38項次, 朝鮮民族

표 2. 頻度가 비교적 큰 행동문제 30항 漢朝兒童 비교

	漢 族		朝鮮 民族		X ²
	人數	%	人數	%	
자기보다 큰 아이와 놀기를 즐긴다	113	22.6	126	24.6	
부끄러워 하고 담이작다	82	16.1	45	8.7	
자기보다 어린아이와 놀기를 즐긴다	65	13	42	8.2	1.16※
자기는 완전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52	10.1	64	12.5	
나쁜생각과 나쁜일을 저지를까봐 두려워하다	58	11.5	41	8.0	
안절부절 또는 활동이 너무 많다	44	8.8	59	11.5	
정신을 집중못하거나 오래 집중 못한다	46	9.2	57	11.1	
밥을 잘 먹지 않는다	57	11.4	45	8.7	
大人을 따라다니기를 즐기며 너무 의존적이다	53	10.6	40	7.8	
잠이 적다	42	8.4	30	5.8	
남이 항상 자기에게 주의를 돌리기를 바란다	22	4.1	42	8.2	6.18※
정서가 쉽게 변한다	38	7.6	19	3.7	7.20 △
뺨을 잘 쓴다	35	7	16	3.1	7.94 △
항상 고독감을 느낀다	36	7.2	23	4.4	
말이 너무 많다	32	6.4	25	4.8	
나쁜일을 하고도 꺼리꺼 하지 않는다	20	4	31	6.0	
입을 닫아 걸고 일이있어도 남과 말한다	29	5.8	15	2.9	5.01 ※
잠이 많다	27	5.4	28	5.4	
말하기 싫어한다	25	5	21	4.1	
지나친 피로감을 느낀다	11	2.2	22	4.2	
손톱을 깨물기 좋아한다	16	3.2	20	3.9	
너무 많이 먹는다	11	2.2	20	3.9	
남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평부리다	20	4	16	3.1	
잠꼬대 또는 夢遊가 있다	8	1.6	20	3.9	5.00 ※
자기에게 불필요한 무건을 감추어둔다	23	4.64	1.2	2.3	3.86 ※

△ P<0.01 ※ P<0.05

다거나 잠꼬대 혹은 夢遊는 조선민족아동들이 한족아동들보다 많았다(모두 P(0.05).

나쁜 생각을 한다던가 나쁜일을 할까와 관심하고 식사를 잘하지 않고 어른과 떨어지기 겁나하고 잠이 적고 남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평부리고 말이 많은 등의 행동은 한족 아동들에게 비교적 많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와 놀기를 즐기며 자기는 반드시 완전완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안절부절 한다던가 활동이 과분하게 많고 정신을 집중하기 바빠하며 주의력을 오래 집중하지 못하고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도 미안한 감이 없고 손톱을 깨무는 등 행동은 조선민족 아동들에게 비교적 많았다.

토 의

1) Social Withdrawal, Depressed Somatic Complaints, Aggressive 등 행동문제는 연변지구 두민족 아동들에게 공동으로 존재하는 가장 많은 행동문제이다. 연변지구의 아동 행동문제 Norm[3]과 중국, 상해, 미국 아동들과 비교해보면 Social withdrawal은 미국과 상해 아동보다 더많았다. 그러나 Aggressive는 미국과 상해보다 적었다. 그이유는 중국 동북환경지구에 처해 있기에 상대적으로 서양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추상된다 신체증상 호소는 연변과 상해가

모두 미국보다 많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의 각종 우울증상은 신체증상으로 표현되는 것과 관련되지 않겠는가 추상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연변지구의 우울 아동의 비례가 상해보다 많고 미국의 자료와 비슷하였다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후로 미룬다. 원인을 불문하고 현황을 놓고 볼때 가정, 학교, 사회상에서 아동심리 교양을 할때 반드시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본다.

2)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내향성 행동문제는 한족 아동들이 조선민족 아동보다 현저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에서도 UncommuniCative 分裂性 혹은 강박행동, 不安強迫행위, 成熟장애활동과다 등 행동문제가 한족아동들의 주요한 문제였다 외향성 행동문제는 조선민족 아동들이 한족

아동보다 많았다 그중 활동과다, 잔폭한 행위, 기율위반 행위가 조선민족아동들이 주요한 문제였다.

때문에 교육부문 또는 사회상에서 아동들의 심리 교양을 진행할때 두 민족 아동들에게 존재하는 공동점만 틀어 쥘것이 아니라 부동점도 틀어쉬어 야만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References

- Achenbach-Tx and Edelbrock C(1983) :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 서도원 徐稻園 等(1987) : 上海市學齡兒童的行動問題調查, 中國心理邊生協會兒童心理邊生走北委員會學木會議資料. 10 於上海.

— ABSTRACT —————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2 : 150~159, 1991* —————

COMPARISON OF BEHAVIOR PROBLEMS AMONG CHILDREN OF KOREAN AND CHINESE ANCESTRY IN YUNBYUN REGION

Pong Chin Kim, Chul Koo Kim, Mi Ja Pyo, Soon Choi
Yunbyun Newsopsychiatric

1012 Yunbyun children (500 of chinese and 512 of Korean ancestry) in kindergarten through sophomore in highschool were assessed using CBCL parental form and their data were compared to study differences in behavior problems among children of korean and chinese ancertry in Yunbyun.

The results indicated that social withdrawal, depressive, somatic complaints and aggressive syndromes were fairey common among Yunbyun children of both korean and chinese ances-try and that compared to children in the u. s. and shanghai, Yunbyun children showed more social withdrawal but less aggeressive behaviors.

Internalizing syndromes such as uncommunicative, schizoid, obsessive and anxious syndr-omes were more prevalent among children of chinese ancestry, while hyperactive and aggers-sive syndromes were more prevalent among children of korean ancestry.